‘젊고, 함께하고, 화합하는’ 포교 한해

[2019 포교 · 신행 결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탈종교화와 탈제도권종교화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이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전법 포교분야의 변화는 지속됐다. 지난해 모바일과 SNS포교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으며, 청년 포교 활성화와 대중 수행법 보급을 통한 수행가풍 진작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포교 신행분야의 이러한 움직임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다.



올해를 수놓은 포교 장면. 사진 왼쪽부터 경불회 동아리방 리모델링 기념식, 포교원 작가 모임, 중앙신도회 수행바라미, 포교사단 11대 사단장선거.

[캠퍼스 포교] 첫 번째 키워드는 ‘캠퍼스 포교’ 다. 올 한해는 포교 신행분야에서 청년포교 활성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특히 각 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학생회의 복원과 기존 학생회실 리모델링, 캠퍼스 연합법회 활성화로 인해 캠퍼스 포교 부흥의 원년이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가장 먼저 3월부터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불교학생회가 연합법회를 새로 구성하며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이끌었다. 명상 구루 초청 강좌 등 문화공간 숨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은 교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맥이 끊겼던 불교학생회도 복원됐다. 6월 서울교대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금강대불교학생회 등의 복원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주도로 경희대 경불회 캠퍼스 동아리실 리모델링 등도 이어졌다.

[인간 불사] 두 번째 키워드는 ‘인간 불사’ 다. 지난해 모바일과 SNS포교를 시작한 조계종 포교원을 필두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웹툰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대상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한해동안 진행됐다. 크게 호평을 받은 작가 템플스테이가 매달 진행됐으며,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회의까지 11월 21일 열리는 등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불교크리에이터 1기도 공식적으로 위촉돼 활발한 활동에 나섰다. 시대 흐름은 미디어의 영향력 확산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1명의 문화 크리에이터가 수백명의 포교인력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불교는 처해있다. 앞으로 이러한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영향력을 지닌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포교 활성화 시동
인플루언서 관리도 나서
5대 수행법 보급 과제로

[수행 바라미] 세 번째 키워드는 ‘수행바라미’ 다. 조계종의 5대 수행법 제창을 골자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5대 수행법에 맞는 수행바라미 정진연수를 진행했다. 수행바라미는 신도조직 실무자들이 수행도량 5곳을 찾아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5개 주제에 대한 법문과 실참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전국 불자들에게 조계종 5대 수행법 보급을 위해 선도적으로 중앙에서 진행 됐다. 새해에는 수행바라미에 근간한 5대 수행법이 불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길 기원해 본다.

[갈등과 화합] 네 번째 키워드는 ‘단체 갈등’ 이다. 집행부 일괄 사태 파문이 일은 포교사단부터 재정 이슈가 터진 불교여성개발원 등 많은 단체들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다. 올해 3월 포교사단은 11대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표출됐다. 포교사단장 선출방식을 둔 갈등으로 포교사단 단장과 부단장 등이 일괄사퇴한 것이다. 이에 포교사단은 긴급TF를 구성하고 3월 10일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또 10월 22일 방창덕 직무대행을 11대 포교사단장으로 선출했다. 포교사단은 내년 창단 20주년을 맞는다. 단복 개선과 포교전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갈등을 딛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포교 일선의 움직임에 격려를 보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후보자 10명 확정

12월 16일, 회의서 자격심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자 10명 전원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2월 16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고 후보 등록한 10명 전원에 자격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주캠퍼스총장 선거에는 구본철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세곤 유아교육과 교수, 김영규 의과대 교수, 김의창 정보경영학과 교수, 김흥회 행정 · 경찰공공학부 교수, 류완하 미술학과 교수, 박병식 행정 · 경찰공공학부 교수, 박용기 한의학과 교수, 신흥묵 한의학과 교수,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 등 총 10명이 후보자로 나서게 됐다.

경주총추위는 토론회와 소견발표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2월 27일 열리는 소견발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캠퍼스 로터스홀에서 진행된다. 15분의 발표에 이어 2명의 경주총추위원 질의에 10분간 답변한다.

한편 경주총추위는 12월 19일 공개토론회를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최봉석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찬불가 가창쇼’ 등 새 포교 모색

포교원, 12월 21일 불교크리에이터 1기 결과공유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불교 SNS채널운영 지원사업으로 발굴한 불교 크리에이터 1기의 결과공유회를 12월 21일 서울 포레스트 구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SNS채널에서 불교 콘텐츠 창작 활동을 펼친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창작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네 달여 간 활동하며 만들어낸 콘텐츠를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고,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간단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크리에이터들은 불교 SNS채널운영지원사업 선정 후 가장 도움이 된 것에 대해 ‘종단에서 응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 ‘활동과정에서 생긴 언론방송 출연 및 인터뷰 기회’ 등을 들었다.

또 불교 SNS채널 운영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 ‘주기적인 콘텐츠 업로드’ 와 ‘장비부족 및 편집역량 부족 등 기술적인 부분’ 을 답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아이고절런’의 운영자 강산 크리에이터는 〈안녕, 불교〉 뮤직비디오를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불교의 매력 포인트’ 를 말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더하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크리에이터들이 재지원시 주제 및 형식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리에서는 어린이불자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찬불가 가창쇼 등이 제안됐다.

포교원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생각을 모으다 보면 각자의 장점을 살린 공동창작 콘텐츠도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있을 동일 사업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침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교원은 불교 크리에이터 2기 발굴을 통해 불교 콘텐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일반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에도 공심으로 불법 홍포”

포교원 · 중앙신도회 12월 17 · 19일 송년법회

조계종 전법단 등 한자리에
신도단체 표창 통해 격려
국제포교사 등도 전법 다짐

조계종이 포교신도단체 송년법회를 통해 새해 새로운 변화에 맞는 포교를 전개할 것을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2월 17일 르메이에르 빌딩에서 열린 포교 · 신도단체 송년법회에서 “한 해 동안 포교 전반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새해에는 포교 전반에서 새로운 바람이 이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공심과 원력으로 정진해 나가자. 불교 포교를 위해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12월 17일 르메이에르 빌딩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송년법회에 참가한 포교, 신도단체 임직원들이 불법 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이날 송년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스카우트협회, 공무원불자연합회, 불교상담개발원 등 단체 대표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신바람 나는 포교 활동으로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으며, 정한신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불교 포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포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12월 19일 전법회관 2층 회의실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법회서는 2019년 한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전국 신도단체 중 우수지부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표창을 받은 신도단체 지부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지부와 대전지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경상부산지부,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부, 불교차인중앙회 인천 남동구지부와 경기 김포지부,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서울경기강원지부와 호남지부, 체육인불자연합회 경남지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와 대전지부, 부산지부, 언론사불자연합회 KBS지부 등이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도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와 송년법회를 열고, 새해 전법의지를 다졌다. 김성림 국제포교사회장은 “조직역량 강화와 구성원 결집을 위해 새롭게 활동할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지도자協 지도자 129명 배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12월 13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명상지도자 워크숍과 자격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명상전문지도사 과정은 총 4개 과정으로, 1급 51명, 2급 50명, 전문가 20명, 수련감독 8명, 총 129명이 자격증을 획득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은 “명상이 세상에 펼쳐져 보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발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 원로이자 동사섭 행복마을 회장 용타 스님은 “명상지도자협회가 불교를 넘어 명상지도자들의 모임이 돼야 한다”며 “한국에 있는 명상 지도자들의 모임.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명상 지도자들이 모여서 뭔가 한 번 움직여 보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증 수여식 이후에는 용타 스님을 비롯한 협회 소속의 명상 지도자들이 진행하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윤호섭 기자

